

2023 봄
제1호

2023 봄 제1호 GLOCALISM QUARTERLY 매거진

GLOCALISM QUARTERLY

매거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me

“국제행사와 지방외교”

국내 지방외교 활동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해외 지방외교 활동 | 협의회 일본사무소, 중국사무소, 호주사무소

지방외교 협력파트너 | (사)한국MICE협회, 호주 GainingEdge

지방외교 뉴스 |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주한독일대사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TENTS

01

국내 지방외교 활동

- [서울특별시]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개최 ... 4
- [부산광역시] 2030세계박람회 유치 8
- [강원특별자치도] 2023강원 세계산림엑스포 개최...12
- [전라북도] 2023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 16

02

해외 지방외교 활동

- [협의회 일본사무소] 일본 혁신 스타트업 육성20
「City-Tech, Tokyo 2023」 국제행사를 다녀와서
- [협의회 중국사무소] 쓰촨성 서부박람회 24
공동개최를 통한 지방교류 활성화 전략
- [협의회 호주사무소] 북반구에 에든버러 축제가 ...28
있다면, 남반구에는 아들레이드 축제가 있다!

03

지방외교 협력파트너

- [한국MICE협회]32
하홍국 사무총장 / 국제행사와 지방외교
- [호주 GainingEdge] 34
Gary Grimmer CEO / 지방시대 전략으로서의 국제행사

04

지방외교 뉴스

-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36
비탈리 펜(Vitaliy Fen) 대사
- [주한독일대사관]40
미하엘 라이펜슈툴(Michael Reiffenstuel) 대사



서울특별시 지방외교 활동



• 서울, 글로벌 TOP 5 도시로의 도약

서울은 2030년까지 글로벌 탑 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모두가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관광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세계인이 찾는 '매력' 특별시 서울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창의와 혁신을 선도하는 다양한 정책이 서울 시정에 깊이 녹아있으며, 그중에서도 도시외교는 서울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서울의 글로벌 비전 달성을 앞당긴다.

서울시의 도시외교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국제적 경기 침체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서울의 매력을 널리 알려 더 많은 세계인과 해외 우수 기업이 모이면 서울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해외 투자가 확대되는 등 결국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서울은 전통의 멋과 현대적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방한 관광객 1,750만 명 중 79%인 1,390만 명이 서울을 찾았다. 서울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은 3천만 세계인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서울의 매력을 세계로

K-팝, K-뷰티 등 전 세계가 한류 문화 콘텐츠의 중심인 서울에 집중하는 지금, 서울의 도시외교는 문화·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 중심의 전략적·실용적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서울은 전 세계 75개 도시와 친선·우호도시 결연을 통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제 중심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주요 도시 등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 등 분야별 해외 우수 도시와의 정책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교통, 상수도 등 서울시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도시별 맞춤형 정책 공유를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의 매력은 이미 다양한 분야의 국제 지표를 통해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2022년 글로벌 창업 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은 서울을 전 세계 280개 도시 중 창업하기 좋은 도시 TOP 10에 선정하였다. 또한 세계 주요 도시들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은 130개 도시 중 10위를 기록하였다. 서울은 '아시아의 디지털 금융 허브'를 목표로 디지털 금융특구 조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등 국제적 수준의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은 글로벌 담론을 주도하는 도시로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도 앞장선다.

이를 위해 도시 간의 전통적인 양자 외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중심의 다자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CityNet과 WeGO 등 도시 중심의 국제기구 의장직 수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확대하고 있으며, 매년 UN,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와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기후변화, 안심소득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정책의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높이는 등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의 분야별 특화 정책은 공공행정 분야 최고 권위의 UN 공공행정상 등 주요 국제 평가를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2018년에는 도시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가진 ‘리관유 세계도시상(Lee Kuan Yew World City Prize)’을 수상하였다. ‘도시행정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리관유 상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탁월한 성과를 보인 도시를 시상하며 수상 도시는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을 개최하게 된다.

• 2023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World Cities Summit Mayors Forum, WCSMF)

2023년 9월, 리관유상 수상도시 서울은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을 개최하여 전 세계 도시를 매력특별시 서울로 초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포용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 핵심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연설한다. 도시의 급속한 기술·경제의 발전 속 ‘약자’에 대한 정의는 도시별로 다를 수 있지만,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서는 ‘약자’와의 동행이 필수적임을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시장포럼에서는 해외 유수 도시의 시장과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등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일간 진행되는 시장포럼은 비공개회의인 메인 세션, 도시별 정책사례 발표, 정책지 시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도시 현안에 대한 토의와 서울시 정책사례를 연계시켜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방안에 대한 통찰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한다.

2023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먼저, 호텔에서 개최되는 획일적인 국제행사에서 벗어나, 서울시의 혁신적 랜드마크이자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꿈꾸는 DDP에서 개최된다.

또한 ‘친환경’ 포럼 준비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글로벌 선도도시로서의 면모를 뽐낸다. 친환경 행사장 조성, 비건·저탄소 메뉴로 구성된 오·만찬 준비 등 세심한 준비와 배려로 전 세계 도시 지도자들을 맞이한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서울의 멋과 아름다움, 미래를 보여주는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K-뷰티의 정수를 보여주는 서울 뷰티워크,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참여하는 Try Everything,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가 한데 모이는 서울패션위크 등 9월 중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다채로운 서울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시장포럼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뿐만 아니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전 세계 도시들이 한 데 모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논의하는 시장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부산광역시 지방외교 활동



• 2030세계박람회 유치의 의미와 국가적 효과



▲ 파리 BIE총회(22. 11. 28.)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의 하나로 인류의 산업·과학기술 발전 성과를 소개하고 인류가 직면한 과제와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등 인류 공영을 추구하는 교류와 공존의 장이 될 것이다.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는 BIE(국제박람회기구,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가 공인하는 세계(등록)박람회와 전문(인정)엑스포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특정 주제로 열린 대전 과학엑스포(1993년), 여수 해양엑스포(2012년)는 전문(인정)엑스포로 아직 우리나라는 세계(등록)박람회를 개최한 적은 없다.

2030세계박람회 개최에 성공할 경우 국가 브랜드는 물론 부산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엄청난 효과가 예상되며, 6개월의 행사 기간 동안 3,48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부산을 찾고 무려 61조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

스마트 혁신 강국으로서 국가 위상 제고는 물론 최빈국과 선진국 모두 경험한 가교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와 한류 확산에 이어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인류는 계속되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경제성장은 점차 둔화되고 있고, 이와 함께 인류는 생태계 파괴, 기술 격차, 사회 양극화 등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는 더욱 표면화 되고 심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인류는 “현재의 위기를 넘어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되었고,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를 넘어 함께 잘 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대전환적 사고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인간과 환경, 인간과 기술, 그리고 인간과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전 인류가 함께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 등 급격한 전환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성장의 결과를 세계의 국가들과 공유하는 가교국가이다.

특히 개최도시인 부산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전환을 이끌어온

도시이자 자연과의 공감을 실천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이 구현되는 미래도시, 돌봄과 나눔의 정신이 깃든 검증된 국제관광컨벤션 도시다.

엑스포 유치를 대한민국 발전의 강한 성장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표준국가 면모를 과시하고, ICT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전세계 문화 영향력 확대 등 진정한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또한 인구, GRDP, 청년 일자리 등 국토의 11%에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남은 89%를 새롭게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한바퀴가 아닌 두바퀴로 굴러가는 국가로서의 전환을 이룰 것이다.

대한민국 전 국민 모두는 2030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는 것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남녀노소와 사는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엑스포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매우 뜨겁다. 이러한 열망에 맞춰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 부산시가 원팀이 되어 전세계 대륙을 돌면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업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가 나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부산시도 자매·우호협력도시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개최도시로서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든 유치활동이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평을 확장하고 개최도시인 부산의 지방외교 내외연 확장의 계기가 될 것이다.



▲ 엘살바도르 대통령 면담(22. 9. 28.)



▲ 코스타리카 대통령 면담(22. 9. 29.)



▲ 파리 메종 드 부산 만찬(22. 11. 29.)

•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도약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7위의 컨테이너항으로, 이는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장점 때문이다. 부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물류, 금융, 신산업, 문화, 관광 등 부산의 핵심 키워드 5가지 요소를 잘 결합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여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처럼 세계적인 허브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은 살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재미있는 도시, 잘 쉴 수 있는 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곳이다.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혁신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시의 모든 도시외교 활동은 이에 귀결 된다. 우리만 잘사는 도시를 뛰어넘어, 세계 도시와 함께, 편리한 생활환경, 수준 높은 문화, 깨끗한 자연환경, 좋은 일자리, 새로운 미래비전을 함께 계획하고 향유 해 나갈 수 있도록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회의 홍보(22. 10. 26.)



▲ 다보스 한국의 밤(23. 1. 18.)



▲ 불가리아 대통령 면담(22. 11. 30.)

지구 반대편의 미처 교류를 시도하지 못했던 원거리 도시와의 만남을 혁신의 기본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 부산의 자매·우호협력도시

부산시의 자매·우호협력都市는 총 40개이며, 대륙별로는 아시아태평양에 22개, 미주7개, 유럽 6개, 중동 4개,

아프리카 1개로 최근 3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라이트 온(Light on), 서신외교, 화상회의 등 다양한 비대면 교류를 통하여 도시외교 네트워크를 굳건히 강화시켜 왔다.

1966년 대만의 가요송과 최초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난 60여년간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한 도시외교를 펼쳐왔다. 상대적으로 자매 우호 도시가 많은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가까운 이웃도시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 왔으나, 이제 도시외교의 외연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원거리 도시와 BIE 회원국 수도도시를 대상으로한 결연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튀니스, 알마티, 소피아와의 우호 협력도시MOU를 전격적으로 체결하였으며, 올해는 산토도밍고, 테구시갈파, 리버풀 광역도시권, 함부르크, 뮌헨, 사마르칸트 등 엑스포유치 전략지역인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서 깊은 도시들을 대상으로 자매·우호협력도시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을 알리는 부산의 대표 외교행사인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민·관·학·언론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을 중앙아시아 전역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고,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축제이자 매년 1백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제834회 함부르크 개항축제에 주빈도시로 참여하여 「KOREA-BUSAN

FESTIVAL」을 개최, 한·독 수교140주년을 기념하고 개최국인 독일을 포함, 유럽 전역에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개최후보 도시 부산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 「세계평화 도시 부산」구현

부산에는 6·25 한국전쟁당시 평화수호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유엔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부산시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평화유산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유엔기념공원 일대를 평화의 성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매년 유엔의 날(10.24.)과 톈투워드 부산(11.11.)을 연결하여 「부산유엔워크」 운영을 통해 세계평화포럼과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개최하여, 「세계평화도시 부산」을 구현하고 평화담론을 계속 공론화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미래세대들이 평화의 소중함을 공감하도록 하고, 22개국 유엔참전국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부산 발전의 역사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지만, 2023년은 우리 부산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분수령이 될 해이다.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에 부산이 호명되는 그날까지, 부산시는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써 세계 5대양 6대주 곳곳으로 전력 질주할 것이다.



▲ 일본시도현교류지사회의 참석(22. 10. 22.)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외교 활동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과
속초, 인제, 양양 일원 개최
높이 45m, 동해바다와 설악산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솔방울전망대,
폭 30m, 길이 40m 규모 주제영상
전시관 등 5개 전시관 조성
산림·환경 관련 학술행사 및 축하공연, 버
스킹 등 상설공연과 이벤트 풍성
숲, 나무 관련 다양한 체험행사와
숲속 산책로 걷기 등 즐길거리 다양

강원도는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주행사장인 강원도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과 부행사장인 속초, 인제, 양양 일원에서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개최한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산림의 역사, 문화, 생태, 환경 등 산림 전반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산림 분야 엑스포로서, 산림 관련 다양한 자원과 자료를 공유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국내 전체 산림면적의 22%가 강원도 산림이며, 강원도 전체 면적의 81%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 중 약 24개 명산이 강원도에 두루 소재하고 있다. 강원도 하면 연상되는 것 중의 하나, 그리고 지역의 주요한 자원이 산림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산림수탈과 한국전쟁을 연이어 거치면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가꾸며 지금의 울창한 산림을

만든 지역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지역이다. 또한, 지난해 1,689억원의 재산피해와 20,923ha의 산림 소실이 발생했던 울진삼척 대형 산불을 비롯해 2019년 2,219억원의 재산피해와 1,266ha의 산림소실이 발생했던 속초, 고성역 대형 산불까지, 산불로 인한 피해와 복구 사례에 있어 강원도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곳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산림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하고, 책임 있게 실천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강원도다. 이번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통해 강원도는 인류와 산림의 바람직한 공존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림의 역사, 문화, 생태, 산업 등 산림 전반을 주제로 하고 있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는 산림을 주제로 한 전시와 체험행사, 학술행사, 다양한 이벤트 행사 및 공연이 가득하며, 잔디광장과 나무, 꽃 정원, 솔방울전망대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함께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엑스포 공식 음식관과 푸드트럭 등을 통해 다양한 먹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산림엑스포는, 볼거리와 즐길거리, 배울거리, 먹거리가 함께하는 말 그대로 숲 속에서 열어보는 종합 선물보따리다.

전시관은 총 5개로, “희망의 숲을 만나다”를 주제로 하는 푸른지구관과, “평화의 숲을 말하다”를 주제로 하는 산림평화관, “인류의 숲을 느끼다”를 주제로 하는 문화유산관, “치유의 숲을 누리다”를 주제로 하는 휴양치유관, “성장의 숲을 만나다”를 주제로 하는 산업교류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제전시관인 푸른지구관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유일한 해답인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담은 환상적인 대형 실감영상이 폭 30M, 길이40M 거대한 공간 안에서 벽면과 바닥면 4면에 펼쳐질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평화관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황폐화된 산림의 복원 과정, 평화와 공존의 숲 DMZ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 문화유산관에서는 한지 꽃 공예로 구성된 공간에서 강원도의 명승지의 절경을 표현한 미디어아트 작품과 함께 숲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휴양치유관에서는 페이퍼아트로 표현된 환상의 숲 공간에서 동화 속 인물로 분장한 연기자의 관람객 소통 퍼포먼스와 함께 캠핑체험 등이 진행되며, 분재, 꽃, 곤충 전시와 나무 그리기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교류관에서는 산림분야 ESG 선도 기업들의 홍보관과 함께 청정임산물, 목재가공, 임산물바이오, 스마트산림, 산림 레저, 친환경 등 산림 관련 산업 전반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개·폐막식 인기 가수 축하공연과 어린이 동화뮤지컬, 트롯콘서트, 발라드콘서트 등 특별공연은 물론, 상설무대와 솔방울전망대 야외무대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마술, 마임 등 상설 공연과 이벤트를 진행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주행사장과 부행사장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주행사장에서는 우크렐라, 카림바, 단소 등을 연주해보는 목악기체험, 목공예품을 만드는 목공DIY체험, 석고를 활용한 방향제 만들기, 숲속 젤 캔들 만들기 체험, 미니꽃바구니와 꽃다발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플로리스트클래스, 숲속사진관, 천연 염색 및 타투와 산림 배경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산림 헤나&캐리커처 등을 상설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임산물 경매에 직접 참여해보는 임산물 경매와 산림 관련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는 산림라이브스튜디오를





운영하여 임업 창업상담, 임산물 재배 등 진행할 계획이며, 산림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클라이밍 등 산림레포츠 체험과 함께 소나무 숲속 길을 걸으면서 피톤치드 가득한 공간에서 힐링할 수 있다. 부 행사장인 고성에서는 DMZ평화탐방투어와 함께 향로봉트레킹대회가 열리며, 속초 청초호 유원지 일대에서는 “빛으로 표현하는 생명의 숲”을 주제로 화려한 조명 불빛이 어우러진 밤 풍경을 연출하고, 국립등산학교에서는 스포츠 클라이밍체험과 동호인 경연대회가 열리며, 설악산자생식물원에서는 숲 체험과 산림문화 백일장이 개최된다. 인제 용대관광단지 일원에서 숲 해설 경연대회와 임산물 한마당 축제, 백담사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며, 양양 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서는 가족 힐링 숲속 목공체험과 목공예 기술자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아울러, 4개 시군의 대표적인 가을축제로는 고성의 명태축제, 속초의 설악문화제와 국화전, 인제의 가을꽃축제, 양양의 연어축제와 송이축제 등이 있어 산림엑스포 행사장과 함께 지역의 가을축제장을 함께 방문한다면 방문객들이 더욱 다양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산림과 환경을 주제로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학술행사가 행사기간 중 엑스포 주개최지 및 부개최지에서 총 4회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엑스포 개막 당일인 9월 22일부터 이틀간 고성에서는 “아시아지역 산림보전 및 생태계 복원”을 주제로 학술행사가 개최된다. 이어 10월 5일부터 속초에서는 “탄소중립 시대의 산림”, 10월 12일부터 인제에서 “문학으로 바라보는 산림과 통일”, 10월 18일부터 양양에서 “강원특별자치시대 지속가능한 강원 산림 발전방안”을 주제로 각 2일 간 학술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장 한 쪽에는 높이 45m, 총길이 왕복 1.2km의 솔방울전망대가 조성된다. 솔방울전망대는 솔방울과 씨앗을 모티브로 만든 산림엑스포 랜드마크 전망대로서, 전망대 상층부에서는 설악산 울산바위를 비롯한 주요 봉우리와 동해바다, 속초시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엑스포 메인게이트로 입장하면 잣나무 열매를 모티브로 한 높이 9m의 상징조형물을 만날 수 있으며, 주요 전시관과 광장, 꽃 정원 등에 포토존이 마련되어, 산림축제로서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라는 메가이벤트의 전세계적인 붐업과 성공 개최를 위해 강원도는 국제 자매·우호지역을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최 시기에 맞춰 주요 교류지역의 정부 관계자 초청도 계획하고 있다.

강원도는 그간 국제 자매·우호지역과의 호혜적이고 실리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 도우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강원도는 전세계 17개국 32개 지역과 자매·우호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협력 동반자적 관계를 통한 도 위상 제고 및 국제사회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금년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강원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게 될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국내외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입장권은 현재 YES24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NH농협은행과 조직위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구입 가능하다. 입장권 가격은 일반(만19세~64세) 10,000원, 청소년(만13세~18세)은 7,000원, 어린이(만7세~12세)는 5,000원이며, 국가(독립)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및 보호자 1명, 만75세 이상, 보호자 동반 만 7세 미만 아동 등은 무료입장이다. 또한, 단체입장객과 강원도민, 강원도 소재 기업·단체와 협약기관, 만65세 이상 만74세 이하, 현역군경 등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며, 현재는 사전예매 기간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입장권 구매 및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홈페이지(www.gwfe.or.kr), 공식SNS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과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 지방외교 활동



▲ 베트남 닥락성 인민위원장 면담 ('23. 2. 15.)

영토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한남체인, K-마켓, 무궁화 유통 등 각국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망과 연달아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별 한인 상공회의소, CPF Japan사 및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라북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해외 교류 지역과의 대면 교류 재개 및 대륙별 교류지역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베트남 닥락성과 교류체결 5주년 기념 단체장 간담을 통해 계절근로자 시스템 구축에 합의하는 등 교류분야를 다양화 하였고, 곧 35주년을 맞이하는 가고시마현 심수관 명예총영사관 내 수장고에 전북도 공예품을 상시 전시하는 등 문화 공공외교를 추진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북-서부수마트라주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관광문화, 농어업 교류 등을 약속하며 동남아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전북은 올해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2023.5.12.~5.20.)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2023.8.1.~8.12.)라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있다. 김관영 지사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와 더불어 대내외적으로 펼쳐질 전북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본다.



▲ 중국 주광주 총영사 면담 ('22. 7. 15.)



▲ 일본 심수관 명예총영사관전시기념식 ('22. 12. 17.)

•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의 세일즈 외교와 성과

작년 7월 취임한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의 국제교류 방향은 글로벌과 실용이다.

문화, 산업 등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한 지방 외교 및 지역과 지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리외교 추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세일즈 맨'이 되어 직접 발로 뛰며 도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취임 직후 미국·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를 연달아 방문한 김 지사는 크고 작은 세일즈 외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계 진출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북은 농생명·바이오 산업, 탄소 산업, 새만금, 문화관광 등 무한한 잠재력의 지역이다. 특히 농업 분야는 전북의 최강점이자 주요 성장 동력이다. 농촌진흥청을 포함하여 농업 관련 국가기관 등 41개 연구시설이 전북에 위치, 대한민국 농업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도는 우선 전북 농산품의 수출길을 개척하는 전라북도 경제



▲ 주한 케냐·시에라리온 대사 면담 ('22. 11. 30.)



▲ 미국 스카우트 대상 잼버리 홍보 ('22. 9. 24.)

•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전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Asia-Pacific Masters Games 2023 Jeonbuk Korea)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개최 연기와 명칭 변경 등 대회 준비기간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엔데믹 분위기 속 빠른 일상 회복으로, 올해 봄 도내 전역에서 아태마스터스대회 세계 선수단을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3 아태마스터스대회는 5월 12일부터 9일간 도내 14개 시군에서 개최된다. 24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인 게이트볼, 파크골프를 더해 총 26개의 종목의 대회가 펼쳐지며 각국 1만 명의 선수단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스터스대회는 1985년부터 은퇴한 프로선수와 올림픽 참가선수들을 대상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나이와 성별,

능력에 상관없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전 세계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제대회로 발전했다. 대륙별 대회인 아태 마스터스는 4년마다 개최되며 지난 20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다. 제2회 대회를 맞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하는 국제마스터스 대회협회(IMGA)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체육회, 아태 조직위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정부가 후원하는 생활체육 분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생활체육 국제종합대회'다. 전북 대회는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이란 슬로건으로 스포츠 도전 정신과 인적교류를 통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간/장소	2023. 5. 12.(금) ~ 5. 20.(토), (9일간) *개회식(5.13.) 전라북도 일원(14개 시군 분산개회)
규모/인원	세계각국 10,000여명(선수 8,000, 동반인 2,000)
경기종목	26개 종목(정식 24, 시범 2)
참가자격	은퇴선수(월드챔피언, 올림픽인, 국가대표), 클럽소속 및 아마추어 선수
주최/주관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 전라북도,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 전라북도 체육회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ASIA-PACIFIC MASTERS GAMES 2023 JEONBUK KOREA

생활체육 국제종합대회

2023. 5. 12.^{FRI} ~ 5. 20.^{SAT}
전라북도 일원

참가대상
30세 이상 누구나 가능

참가규모
세계 각 국 10,000여 명

참가안내
등록일시
2022년 1월 12일(수) ~ 2023년 3월 12일(일)
등록방법
공식홈페이지 참고(www.apmg2023.kr)

대회종목
26개 종목(정식경기 24, 시범경기 2)
(정식) 양궁, 육상, 배드민턴, 야구, 농구, 볼링, 사이클, 골프, 하키, 유도, 롤러스포츠, 세일링, 사격, 축구, 소프트볼, 스쿼시, 수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배구, 역도, 우슈, (시범) 게이트볼, 파크골프


www.apmg2023.kr

ENJOY SPORTS!
PLAY LIFE!

주최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 INTERNATIONAL MASTERS GAMES ASSOCIATION

주관  2023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전라북도체육회 Jeonbuk Sports Council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OT  대한체육회  한국관광공사

▲ 대회 포스터

일본 혁신 스타트업 육성 「City-Tech. Tokyo 2023」국제행사를 다녀와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일본사무소 이광영 2등 서기관



스타트업(Startup)이라는 용어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창업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세계 각 국가들은 스타트업 창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고 있다.

새로운 변화와 세상의 중심에 혁신 스타트업이 있다. 스타트업 활성화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특히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 및 경제적 위기 상황의 돌파구로 스타트업 육성이 대안으로 국가 경제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국내 Start-up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국내 지방정부 스타트업 관계 공무원에게 「City-Tech. Tokyo 2023」국제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에서 스타트업에 근무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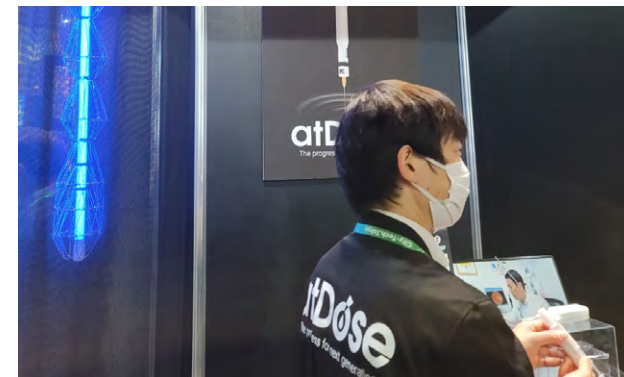
관심 있는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2. 27(월) ~ 3. 3.(금) 5박 6일간 도쿄 「City-Tech. Tokyo 2023」 행사 및 고베의료산업도시(KBIC) 추진 기구를 방문했다.

최근 스타트업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창업을 국가경제 성장으로 인식하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의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새로운 혁신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디지털 헬스케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고부가 기술이 필요한 신생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코로나19 이후, 전통적 대면 서비스에서 비대면 서비스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온라인화가 가속되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 성향 및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트렌드가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배달음식과 넷플릭스·유튜브 등 개인화 영상플랫폼, 화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기술(IT)·전자산업 등이 위기 상황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가상세계인 이커머스, 온라인쇼핑, 배송, 온라인 교육, 원격진료, 스마트뱅킹과 핀테크 등의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비즈니스와 온라인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경제는 빅데이터, 5G, VR/AR,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적용으로 보다 활발히 우리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을 것이다.



이번 「City-Tech. Tokyo 2023」 국제행사는 23. 2. 27(월) ~ 2. 28.(화)에 걸쳐 2일간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도쿄국제포럼에서 스타트업 발굴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지원을 위해 도쿄도 주관으로 행사가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City-Tech”를 도쿄에서 세계로 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를 다양한 아이디어와 테크놀로지로 극복하여, 지속 가능한 새로운 도시상으로 이끄는 접근법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본 행사는 2023년 2월에 도쿄에서 첫 개최되는 스타트업의 이벤트로 스타트업 기업 300여개의 부스와 30개국 100여개 도시에서 1만여 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하여 스타트업의 협업과 투자 확대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졌다.

「City-Tech. Tokyo 2023」의 메인 테마로 4가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도시상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Infrastructure×City-Tech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 구현과 새로운 모빌리티를 통한 도시 내 정시성이 확보된 단거리 이동 편의성 향상
둘째, Living×City-Tech로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누구나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의 내실화
셋째, Environment×City-Tech로 에너지 생산·소비 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탈탄소 사회·순환형 사회 실현과 차세대 식품의 개발 및 식량의 안정 공급

넷째, Culture×City-Tech로 도시가 본래 가지는 전통적인 문화와 첨단기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성 창출, 도시의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행사의 최신정보 기초연설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City-Tech에 의한 이노베이션으로 도시는 어떻게 변화할지 세계적 저명인사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탈 공동 대표인 벤호로비츠 등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City-Tech의 메인 테마나 혁신을 둘러싼 화제에

키노트(City-Tech에 의한 세계적 저명인사들이 전망)

① Ben Horowitz : Andreessen Horowitz 공동 창업자

- 미국 대표 VC, 페이스북, 슬랙, 에어비앤비 등 많은 유명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실적이 있는 ‘더 하드 씽’ 저자

② Ulrike Schaede :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글로벌 정책 및 전략 대학원교수

- 일본을 대상으로 한 기업전략, 조직론, 금융 시장, 기업재판, 창업론 등이 연구영역 ‘양쪽 조직을 만든다’ 저자

③ 隈 研吾 : 쿠마켄고 건축도시설계사무소

- 국립경기장 설계에 종사하는 2021년 미국 TIME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대해서, 세계의 우수한 창업가가 참석하여 다양한 창업 사례의 강연을 통해 미래의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시민에게 창업에 대한 열기를 불어 넣었으며, 총상금 1억원의 피치콘테스트에서 30개국 300개가 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2일간의 도쿄행사가 끝나고 3. 1(수) 오후에 방문단은

세션

- ① 出雲 充 : 주식회사 유글레나 창업자·대표이사 사장 CEO
- ② Murat Aktihanoglu : Entrepreneurs Roundtable Accelerator 공동창립자 겸 매니징 디렉터
- ③ Bob Mumgaard : Commonwealth Fusion Systems CEO
- ④ 久能 祐子 : 주식회사 페니크시 공동창업자·이사
- ⑤ Sampo Hietanen : MaaS global CEO
- ⑥ 端羽英子 : 비자스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CEO
- ⑦ Shuo Yang : Lowercarbon Capital 파트너
- ⑧ Nida Shah : Web Summit COO
- ⑨ Richard Liu : Ehang CFO
- ⑩ Tim Tompkins : 뉴욕대학교 바그너 공공서비스대학원 특임교수



1995년에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계기로, 일본 최대급의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 성장한 고베시를 방문하였다.

고베시는 일본 효고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6번째로 큰 도시로서 인구 150만 명의 대도시로 2022년 우리나라와 무역규모는 수출액 319,970백만 엔, 수입액 156,551백만 엔 규모로 성장한 도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본에서 고향납세를 이용하여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2008년에 시작하여 고향이나 도움을 받은 지자체에 감사와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거나 또는 세금의 용도를 자기 의사로 금액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일본 전국의 고향납세는 규모도 2008년에 5.4만 건 81억 엔으로 시작하여 2021년에 4,447만 건 8,302억 엔 규모로 원화로 환산하면 8조 3천억원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고베시는 2016. 8. 부터 고향납세를 통해 민간 클라우드 펀딩을 조성하여 IT관련 창업가를 지원하는 '고베 스타트업 오피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간 클라우드 펀딩 모집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조달을 받는 형식으로, 모인 자금은 고향납세로 일단 전액 고베시의 수입으로 들어간 후, 보조금으로 사업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고베시에서는 1995년에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부터 부흥을 계기로 일본 최대급의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 성장하여 「Life-Tech KOBE」스타트업 에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본 사업은 지역대학, 자치단체, 커뮤니티, 사업회사, 경제단체, 금융기관, 전문가, 지원기관, 창출 육성단체의 유기적 지원체계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스타트업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화 자금 지원, 민간기업과의 매칭, SDGs 과제 해결을 목표로 CHALLENGE 공동창작 프로그램 운영, 해외 진출 지원, 11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 운영, '기업프라자 효고' 및 '양카고베'라는 창업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있다.

방문단은 이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혁신 스타트업 육성 「City-Tech.Tokyo 2023」국제행사 및 「Life-Tech KOBE」스타트업 에코 시스템을 통해 일본의 스타트업 지원에 대해 경험을 활용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 육성 전략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본다.



중국 쓰촨성 서부박람회 공동개최를 통한 지방교류 활성화 전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 김상광 소장

2023년은 한중수교 이래 양국 지방교류 31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여 지방교류가 재활성화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지금까지 한중 지방교류 횟수는 자매결연과 우호협약 체결 등 총 686건(38.5%)에 달하여 세계1위이다(2위 일본 210건, 3위 미국 187건).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시기에는 양국간 현장 대면교류가 거의 중단되면서 방역물품의 상호교환, 온라인 비대면 교류, 도우인 등 전자상거래 도입 등 새로운 교류형태가 등장하였다. 특히, 이시기에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간 총 206회의 방역물품이 전달되었고, 대한적십자사에 기탁된 중국 지방정부의 성금이 48억원에 달할 정도로 따뜻한 이웃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상 한중 지방교류의 성과를 종합하면, 양적인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다. 먼저, 교류형태 측면에서 시도 대표단 방문, 지방공무원·대학생 초청연수, 문화·스포츠 교류 등 행정문화교류가 81.8%로 다수인 반면에 향토기업 제품 마케팅, 투자유치, 박람회 개최 등 경제통상교류는 18.2%에 불과하다. 또한 교류지역을 살펴보면도 중국의 동부 연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서부·중부지역과의 교류는 부족하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부연안에 교류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서부지역 진출은 취약한 편이다. 중국에 설치한 지방정부대표처 26개소의 소재지를 살펴보면도 상하이 10개소, 산둥성 6개소로 동부연안에 절반이 넘고, 서부지역에 진출한 지방정부대표처는 경기도 충청대표처가 유일하다.

〈표〉중국 권역별 지방교류 통계

권역	성·시·자치구 (교류건수, 자매결연/우호협력, 비중)	권역	성·시·자치구 (교류건수, 자매결연/우호협력, 비중)
화북/화중 지역	베이징시(26건, 18/8, 3.79%), 톈진시(12건, 5/7, 1.75%), 허베이성(28건, 6/22, 4.08%), 산시성(山西)(3건, 3/0, 0.44%), 네이멍구자치구(4건, 1/3, 0.58%)	화남 지역	광둥성(22건, 8/14, 3.21%), 광시좡족자치구(11건, 6/5, 1.6%), 하이난성(5건, 1/4, 0.72%)
	허난성(24건, 11/13, 3.50%), 후베이성(22건, 6/16, 3.21%), 후난성(9건, 4/5, 1/31%)		
	소계(128건, 54/74, 18.66%)		소계(38건, 15/23, 5.54%)
동북 지역	랴오닝성(72건, 26/46, 10.5%), 지린성(54건, 15/39, 7.87%), 헤이룽장성(28건, 7/21, 4.08%)	서부 지역	충칭시(9건, 4/5, 1.31%), 쓰촨성(21건, 6/15, 3.06%), 구이저우성(4건, 1/3, 0.58%), 윈난성(6건, 0/6, 0.87%), 시짱자치구(1건, 0/1, 0.15%), 산시성(陝西)(17건, 7/10, 2.48%)
화동 지역	상하이시(25건, 8/17, 3.64%), 장쑤성(63건, 25/38, 9.18%), 저장성(49건, 12/37, 7.14%), 안후이성(12건, 7/5, 1.75%), 푸젠성(9건, 1/8, 1.31%), 장시성(13건, 6/7, 1.90%)		간쑤성(3건, 1/2, 0.44%), 칭하이성(3건, 1/2, 0.44%), 닝샤회족자치구(2건, 0/2, 0.29%), 신장웨이얼자치구(1건, 1/0, 0.15%)
	산둥성(128건, 36/92건, 18.66%)		소계(67건, 22/45, 9.77%)
	소계(299건, 95/204, 43.59%)		
총계(686건, 234/452, 100%)			

(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DB)

구체적으로 한중 지방교류는 산둥성, 장쑤성, 저장성, 상하이시 등 화동(華東)지역과 랴오닝성, 지린성 등 동북(東北)지역 그리고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 화북(華北)지역에 교류의 76.7%가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서부(西部), 화중(華中), 화남(華南)지역과의 교류는 23.3%로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부지역 9개 지방정부와의 교류비중은 9.8%로서 쓰촨성(3.1%), 산시성(2.5%), 충칭시(1.3%), 윈난성(0.9%), 구이저우성(0.6%), 간쑤성(0.4%), 칭하이성(0.4%), 닝샤회족자치구(0.3%), 신장웨이얼자치구(0.2%), 시짱자치구(0.2%)순이다.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지난 30년간 쌓아올린 한중 도시간 자매결연 등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간 우호정서 증진, 지역 향토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서부지역, 화중지역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중국 서부지역과의 지방교류가 주는 장점과 기회요인은 무엇인가? 서부지역은 지난 2000년대부터 중국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부대개발’ 사업의 발원지이다. 서부대개발은 20여년 동안 동부중심의 선부론(先富論)과 불균형발전론에 대응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한 역점시책이다. 지난해 3선 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차기 핵심정책으로 내세우는 ‘공동부유(共同富裕)’는 서부대개발의 연장선상에 있다. 서부지역의 급속한 성장은 최근 경제성장률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서부지역 9개 성정부의 2022년 GDP 비중은 중국 전체의 16.8%이고, 평균 경제성장률은 3.23%로서 전국평균을 상회한다. 대표지역인 쓰촨성(四川省)의 2021년 GDP 성장률은 8.2%로 전국 6위이고, 산시성은 전국 14위, 충칭시는 17위이다. 한국기업의 쓰촨성, 윈난성 진출도 활발하여 현대, 포스코, 롯데 등 40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또한 신발의류, 화장품,



미용, 애견용품, 가공 농산물 등 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높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품목과도 연관성이 높다. 최근 서부지역은 지리적으로 중부아시아와 유럽, 몽고와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일대일로(一帶一路)' 거점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서부내륙의 "청두-충칭 공동경제권(成渝双城经济圈)"은 장강삼각주(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주강삼각주(광둥성, 홍콩, 마카오),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성)에 이어 중국 4위의 핵심성장지역이다.

최근 한국 수출의 최대 25%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중국 수출이 메모리 반도체 단가하락,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수출감소 등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23년 1월, 39.7억불 적자).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수입산업 대체화에 성공하여 우리나라와 강력한 수출 경쟁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올해 위드코로나로 중국 리오프닝 상황이 온다 해도 과거와 같이 흑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한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의 중소기업, 향토기업 등과 협업하여 권역별 중국 시장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중국의 2선, 3선, 4선 도시, 중서부 지역에는 한국산 소비제품이 인기를 얻는 틈새시장이 있고,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도 기회요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는 2023년부터 기존의 행정문화교류의 토대위에 코로나 시기의 온라인 비대면 교류의 확장을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화된 교류방안을 고민해 왔다. 그 결과, 농업, 제조업, IT, BT, 관광, 문화 등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한중 지방교류를 접목시키는 플랫폼으로 '한중 지방정부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 쓰촨성/청두시 지방정부, 중국 국제상회 등과 공동으로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제1회 한중 지방정부 경제문화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 지방정부 경제교류의 이정표이자 지방교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올해 개최되는 '한중 지방정부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한국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성(省)급 지방정부에는 지난 30여년간

중국 공무원 초청연수를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연수생이 1,000여명이 있다. 이러한 친한파 공무원을 인적자원으로 지방정부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강소기업, 지역의 챔피언기업이 중국시장에 도전하여야 한다. 한국 지방정부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 지방정부 박람회'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중 지방정부대표처와 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의 협업이 필요하다. 중국에 진출하는 지방정부 대표처는 각 시도를 대표하여 지역의 연락소 겸 경제교류의 거점으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주중 지방정부 대표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중국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와 연합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로의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며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공진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기대해 본다.



쓰촨성 현황

주요 지도자

- ▶ 서기 : Wang Xiaohui(王晓晖)
- ▶ 성장 : Huang Qiang(黄强)
- ※청두시 당서기 : Shi Xiaolin(施小林), 시장 : Wang Fengchao(王凤朝)

행정구역

- ▶ 정식명칭 : 쓰촨성(四川省)
- ※약칭 : 川(천), 蜀(촉), 별칭 : 천부지국(天府之國)
- ▶ 성정부 소재지(省会) : 청두(成都)
- ▶ 지급시(地級市) 18개, 자치주(自治州) 3개, 시 직할구(市轄區) 55개, 현급시(縣級市) 19개, 현(縣) 105개, 자치현 4개

면적

- ▶ 48.6만km²(동서 1,075km, 남북 921km)
- ▶ 중국 32개 성, 직할시, 자치구 중 5위, 중국 전체 영토의 5.08%(남한의 4.9배, 한반도의 2.2배)

인구(2021년)

- ▶ 상주인구 8,372만명(한국 인구의 약 162%)
- 중국 내 5위(광둥성, 산둥성, 허난성, 장쑤성 다음)
- 중국 내 최대 이족(彝族)거주지와 두 번째로 큰 장족(藏族, 티베트족)거주지, 중국 유일의 강족(羌族) 거주지 소재

주요경제지표(2021년)

- ▶ GDP : 5조3,850억원(전년대비 8.2% 증가, 규모 전국 6위)
- ▶ 1인당 GDP : 64,400원(전년대비 10.9% 증가, 전국 18위)
- ▶ 대외무역규모 : 9,513.6억원(약 1,473.1억 달러, 전년대비 17.6% 증가)
- ▶ 외국인투자 : 120.4억 달러(2020년)/33.61억 달러(2021년)
- ▶ 세계 500 대기업 : 377개

위치

- ▶ 중국 서남부 내륙 양쯔강(揚子江) 상류
- 북쪽으로 青海, 甘肅, 陝西, 동쪽으로 重慶, 남쪽으로 雲南, 貴州, 서쪽으로 西藏과 인접

약도



기후

- ▶ 기후 : 연평균 기온 14~19℃, 연평균 강수량 900~1,200mm
- 아열대 습윤 기후, 복잡한 지형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일기변화가 많은 편
- 겨울 : 0~10℃, 여름 : 28~35℃

부존자원

- ▶ 중국 최대 수력발전 지역(전국 1위, 생산량 비중 23%)
- ▶ 7종 광물(티타늄·바나듐·리튬·은·경희토·암염·황철석) 매장량 전국 1위
- ※ 희소금속인 티타늄과 바나듐은 전 세계 매장량 82%, 1/3 차지
- ▶ 세일가스 매장량 전국 2/3, 천연가스 매장량 전국 29%

북반구에 에든버러 축제가 있다면 남반구에는 아들레이드 축제가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호주사무소 임효진 부영사

누구나 한번쯤은 에든버러 축제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호주에도 북반구 에든버러 축제에 버금갈 만한 역사와 전통의 축제가 있으니, 바로 남호주주의 주도 아들레이드시에서 매년 3월 개최되는 아들레이드 축제다. 지방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아들레이드 축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타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자국의 문화, 전통, 예술, 정책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해당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

• 아들레이드 축제 개요

공식 명칭은 아들레이드 예술 축제(Adelaide Festival of Arts)로, 줄여서 아들레이드 축제(Adelaide Festival)라고 부른다. 남호주주 주도 아들레이드 시에서 매년 3월에 열리며, 1960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38회를 맞았다. 격년으로 개최되다가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기 시작했다. (아들레이드 프린지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됨.)

올해는 3월 3일부터 19일까지 아들레이드 시내 중심가와 인근 공원, 페스티벌 센터에서 연극, 음악, 오페라, 무용, 미디어 및 시각 예술 분야의 총 52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World Atlas)



▲ 아들레이드 축제 현장 2 (출처: Adelaide Festival 공식 홈페이지)

2023년 아들레이드 축제 주요 일정

- **아들레이드 축제 2023. 3. 3. ~ 3.19.**
 - 작가 주간(Writers' Week) 2023. 3. 4. ~ 3. 9.
 - 워마들레이드(WOMADelaide)* 2023. 3. 10. ~ 3.13.
 - * World Of Music Arts & Dance의 줄임말로, 아들레이드 축제 기간 중 개최되는 전 세계적인 음악 및 댄스 공연
- **아들레이드 프린지 축제 2023. 2.17. ~ 3.19.**



▲ 아들레이드 축제 현장 1 (출처: Adelaide Festival 공식 홈페이지)

• 2022년 아들레이드 축제 개최 성과

아들레이드 페스티벌 협회와 남호주 주정부는 2022년 아들레이드 축제가 △티켓 판매 수익 490만 호불(약 41억 6천만 원) 달성, △총 228,737명 관람 및 △남호주주 총 생산(Gross State Product) 중 2,640만 호불(약 224억 4천만 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아들레이드 축제가 시작되기까지

아들레이드 축제는 남호주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로이드 더마스(Sir Lloyd Dumas)경의 열정에서 시작됐다. 언론인이자 신문사 임원이었던 그는 아들레이드 대학교와 아들레이드 시, 아들레이드 은행 등의 후원을 얻어 1960년 3월 12일 최초로 아들레이드 축제를 개최했다. 당시 에든버러 축제의 예술 감독들이 기획을 도왔다. 1회 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2회 축제에는 남호주주정부의 지원도 받게 된다. 향후 아들레이드 작가 주간(Adelaide Writers' Week), 전 세계적인 음악 축제인 워마들레이드(WOMADelaide) 등과 통합 운영하게 되면서 규모는 점차 커지게 된다.



• 아데레이드 축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

축제의 조직적인 개최를 위해 지방정부는 1998년, 아데레이드 페스티벌 협회에 관한 법률(Adelaide Festival Corporation Act 1998)을 제정하고 해당 법에 의거하여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공공 단체(Adelaide Festival Corporation)를 설립한다. 1996년까지는 남호주주 예술부와 남호주 주립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 아데레이드 축제의 기획 및 개최를 담당했으나 2018년 남호주주 총리실 예술 및 문화 담당 부서로 이관되었다. 예술 감독은 일 년 혹은 수 년 단위로 계약되는데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임된다. 운영자금의 대부분은 남호주주 주정부에서 총당하나 국내외 기부도 주요 재정원이다. 2022년에는 주정부 예산 125만 호불(약 10억 6천만 원)보다도 많은 200만 호불(약 17억 원)의 기부금이 모금되기도 했다.

• 누구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아데레이드 프린지 축제

매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아데레이드 축제를 전후하여 7,000명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아데레이드 프린지 축제도 아데레이드 시 전역에서 개최된다. 처음에는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와 마찬가지로 아데레이드 축제에 초청받지 못한 지역 예술가들이 자생적으로 예술 공연을 선보이면서 시작됐으며 1975년에는 프린지 축제를 주관하는 사단법인이 설립되었다. 아데레이드 프린지 축제에 참여한 예술가 중 한 개인(팀)에게 수여되는 'The Made in Adelaide Award'는 남호주주 예술가들을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에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처음 수여되었으며 상금은 10만 호불 규모다.(약 850만 원)

※ 프린지(fringe) : 가장자리, 주변을 뜻하는 말. 1947년 에든버러 축제에 초청받지 못한 단체들이 주변부에서 자생적으로 공연하면서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가 유명해짐.

2023년 아데레이드 축제 예술감독



• 루스 맥켄지(Ruth Mackenzie)

- 前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드라마부문 감독
- 前 홀란드 페스티벌 감독
- 前 맨체스터 국제 페스티벌 감독
- 前 런던 2012 페스티벌(London 2012 Festival) 감독
- 前 런던 2012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 담당



• 시사점

아데레이드 축제는 남호주주 예술가들의 주요 활동 무대로, 관객들이 예술을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지역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국제 문화 행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아데레이드 시는 '축제의 도시, 아데레이드(Festival City Adelaide)'라는 문구로 도시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아데레이드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관련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https://festivalcityadelaide.com.au/festivals/adelaide-festival/>)

공공외교법에도 지방정부가 공공외교의 주체로 명시돼 있는 만큼, 향후 공공외교에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잘 만든 축제 하나로 세계적인 명소가 된 아데레이드에서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외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사)한국MICE협회 하홍국 사무총장

Glocalism Quarterly 창간,
국제행사와 지방외교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동안 멈추었던 국제행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세계경제포럼인 Davos Forum 등이 정상적으로 열리며 개최도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UIA) 기준으로 국제회의 개최순위 1, 2위를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각 지방정부별로 기획하고 유치한 다양한 국제행사들을 분주히 준비하고 있다. 최근의

어려운 여러 국제정세 속에서도 문화 한류, 글로벌 산업 혁신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가고 싶은 나라'에서 '꼭 가야할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수요를 충족시켜줄 지방정부의 수용태세도 촘촘히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제행사의 개최, 준비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예산을 투입해야하는데, 참가자의 소비지출로 인한 수입이 개최 예산을 상쇄하여야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참가자 수가 많지 않으면 국제행사의 유치나 개최를 꺼려하며, 방문자 경제의 관점에서 개최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관점이다. 실질적인 유무형의 파급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훨씬 다양하게 나타난다. 국제행사는 개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마케팅, 지역 산업과 문화의 촉매, 분야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정보교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투자유치와 행사이후에 연쇄적으로 확대 재생되는 지역 활성화 등 지방외교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비즈니스이벤트이다.

도시든 지역이든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는 상징적인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선진, 신흥 국가들의 지방정부에서는 마이스(MICE)로 통칭되는 국제행사를 전략산업으로 설정하여 전폭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인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기후변화 문제, UN 지속 가능 성장의 실천, 대립 구도의 국제 정세 완화 등 지구상의 모든 난제는 결국 국제행사를 통한 만남과 공감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와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소멸되고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면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관계인구, 교류인구를 확장시킬 수 있다. 지역의 산업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특화 콘텐츠를 접목한 국제행사를 통해 소멸하는 지역이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한 사례는 적지 않다. 하지만 국제행사는 대규모이어야 하고 많은 외국인 참가자를 모아야하고 컨벤션센터와 같은 인프라가

있어야만 개최가 가능하다는 선입관으로 인해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행사는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행사개최로 인한 파급효과가 더 중요하다. 팬데믹 기간에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하여 성공한 국제행사는 P4G정상회의 등 수많은 사례가 있다.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실감형 콘텐츠가 접목된 메타버스 행사로 진화되면서 이제 국제행사를 기획함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핑계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의지만 있다면 어떤 지방정부에서든 세계적인 행사를 기획할 수 있게 되었다. 작지만 강한 국제 행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하이테크(high tech)를 넘어 하이터치(high touch)로, 하드파워(hard power)를 넘어 소프트파워(soft power)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대전환 시대에서 개최되는 각 지방정부의 국제행사는 단순히 행사에 그치지 않고 유산(Legacy)이 되는 지방 외교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호주 GainingEdge Gary Grimmer, CEO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강력한 전략으로서의 국제 행사



▲ 게리 그리머(Gary Grimmer)는 호주 멜버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 컨설팅 업체 게이닝에지(GainingEdge)의 회장이자 설립자이다.

한국의 도시들이 글로벌 참여에 대한 여러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목표는 최저 비용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도시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 행사, 더 구체적으로는 국제 회의 및 전시회 개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영향의 문제로 시작해보자. 모든 도시는 각각의 글로벌 참여와 관련하여 다른 목표를 가질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개발하려고 하는 서로 다른 우선 순위의 산업 부문이 있게 마련이다. 환경적으로는 지역의 현실과 가장 관련이 깊은 다양한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관심을 필요로 하는 다른 문제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도시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 전략과 발전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지표들을 수립했다.

이러한 목표에 글로벌리즘의 개념을 적용할 때,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유형의 국제적 참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업 사무실 및 공장 유치, 인재 채용, 수출 개발, 연구의 연계성 확보, 지적 관계 구축 등이 될 것이며 이 외에도 추가적인 활동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책 솔루션 협력을 위해 만나는 것처럼 세계의 거의 모든 기업이 공통된 관심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지식 교환을 위해 만나고, 그 결과 새로운 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체가 만나는 곳이면 어디든 전 세계의 선구적인 사상가, 재계 지도자, 투자자, 무역업자, 기업가, 공급업자, 구매자, 창작자, 혁신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글로벌리즘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 핵심은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도시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본질적으로 자원을 외부에 배치하는 푸시(push) 전략으로, 목표로 하는 인맥 넓히기를 위해 여러 지리적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기기(pull) 전략으로 동일한 인맥 넓히기 대상들을 도시로 유인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갈 수도 있고, 그들이 당신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접근법은 비용은 물론 많은 인력이 들고, 다수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행사는 두 번째 접근법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도시들이 주목을 끄는 세계적인 행사들을 유치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바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사실상 이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가장 좋은 부분 중 하나는 이들이 스스로 돈을 내고 오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돈을 내고 그들에게 갈 수도 있고 그들이 당신에게 오기 위해 돈을 지불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도시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하지만, 도시 내에서 글로벌 청중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강력하고 경제적인 형태의 글로벌리즘이 분명하다.

이 개념은 도시 비전 전략의 모든 요소에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 및 도시가 구상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또는 경제적 열망과 관련된 협의체 및 행사가 있다. 대부분의 한국 도시들은 지식 관련은 물론 창조 경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도시들은 그러한 산업들을 건설하기 위한 지적 자본이 필요하다.

도시의 지적 자본의 큰 부분은 협의체와 그들의 모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도시의 사람들일 것이다.

미래의 도시들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행사 유산 전략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커뮤니티에서 연결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글로벌 행사 유치를 통해 최고의 진전을 볼 수 있는 비전 목표는 무엇일까? 행사를 유치하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기다리는 임시 변통의 접근법보다는 실제로 어떤 행사를 목표로 할지 결정하고, 그로 인해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할 활동을 계획하고, 그 영향을 측정할 수단을 고안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대구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했다. 이 포럼은 물 문제에 관한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였다. 168개국 4만 명의 참석자들과 전 세계에서 900명의 기자들이 몰려 왔다. 한국 정부는 대구에 물산업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3,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구를 한국의 '물의 도시'로 지정했다. 대구의 물 관련 산업, 연구개발 시설, 대학의 프로그램들은 세계를 선도하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구는 깨끗한 물과 관련하여 상업적, 지적, 과학적, 산업적, 사회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세계적인 명성과 지위를 확립했다.

결론은? 비즈니스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및 지적 참여를 위한 글로벌한 방식의 강력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비탈리 펜 대사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가까운 파트너"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독립 선언 이후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선도 국가들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호혜적 협력의 결과로 우즈베키스탄-한국 관계는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양국 수교 이후 국가 정상급 회의는 18차례 열렸다. 이러한 잇단 회의의 결과로 양국은 정치, 경제, 무역, 문화, 인도주의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상호 합의를 이루었다. 2021년 12월 샤브카트 미르지옌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서울에서는 고위급 회의와 협상이 열렸고, 한국 국회 지도자들과 유수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도



개최됐다.

이 역사적 방문은 다자간 관계 발전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방문의 틀 안에서 양국 정상은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의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단기적인 의제의 3대 협력 분야로 '녹색' 개발, 디지털화, 사회 보호 시스템 강화 등을 언급했다. 이러한 주요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미래의 모든 공동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실행 계획을 위한 발전도 제안되었다. 아울러 미르지옌프 대통령은 2022년을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의 상호 교류의 해'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무역 및 경제 파트너 중 하나이다. 최근 몇 년간 교류 및 합작 투자 건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관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수백 개의 우선 투자 프로젝트가 양국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선도 기업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 투자자들이 참여한 약 900개의 기업들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으로부터 들어온 투자 규모는 70억



달러를 넘었다.

2021년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금액은 3억2000만 달러로 2020년 대비 20% 증가했다. 이 자금은 화학, 석유화학, 섬유, 건설, 농업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 개발에 사용되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을 통한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했다. 상당한 자금이 2023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신규 사업 추진에 배정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생산적인 파트너십도 확대되고 있다. 오랜 기간 무역, 과학, 문화의 중심지였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지금 기업들을 위한 폭넓은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의지는 최선의 관행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 점에서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은 양국의 이익에 균등하게 부합한다. 한국 측은 법치주의, 지역 안보, 종교적 관용, 언론의 자유, 양성 평등 등의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7월에는 서울에서 '우즈베키스탄의 헌법 개정'에 대한 원탁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의 정치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헌법 개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은 보건의료와 취학 전 및 고등 교육 분야에서 강력하게 협력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 시행된 첫 주요 공동사업의 결과로 2020년 타슈켄트에서 아동을 위한 종합 진료소의 운영이 시작됐다. 한국의 교육 모델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것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의 취학 전 교육 제도가 한국의 앞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개혁되었다. 대학 간 혁신적인 협력을 발전시키고 상시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 타슈켄트에서 양국 고등교육기관의 리더십 포럼이 예정되어 있다. 양국의 문화적 관계도 해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위대한 시인이자 사상가인 알리셰르 나보이의 동상이 2021년 12월 한국에 건립된 것이 양국의 영적 삶에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주장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은 매우

비슷하다. 또한 국민들의 정신적 친밀성과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인의 대규모 디아스포라는 양국간 우호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양국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원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18만 명 이상의 한국 교포들은 우즈베키스탄 다국적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지난해 양국은 수교 30주년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우즈베키스탄 디아스포라 85주년을 기념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주도로 현재 타슈켄트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의전당 산하에 한국역사박물관과 도서관이 건립되고 있다. 국회 간 긴밀한 협력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양국 의회 간에는 '우호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가장 최근 만남은 2022년 8월 타슈켄트에서 열렸다. 긴밀한 지역간 관계의 테두리 내에서 타슈켄트와 서울, 페르가나와 인천, 사마르칸트와 경주, 부하라와 대구 등 많은 도시들 사이의 상호 협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주지사들의 지역은 페르가나(3월 7~11일), 부하라(8월 24~27일), 타슈켄트(9월 5~9일), 시르다리아(11월 2~5일)였다. 이외에도 타슈켄트 치르치키시 부시장(9월 19~24일)과 나망간 부지사(12월 11일~16일)가 이끄는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 대표단은 모두 한국의 지방과 도시에서 상대 대표들과 유익한 만남을 가졌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8월 10~13일 타슈켄트 지역), 정장선 평택 시장(11월 9~12일, 시르다리아 지역), 주낙영 경주 시장(12월 12~15일, 사마르칸트·부하라 지역)은 물론 부산시 산하 부산경제개발원장(9월 19~20일 타슈켄트 지역), 부산시 산하 부산정보기술 협회장(10월 23~26일 나망간 지역)의 우즈베키스탄 방문도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 3일부터 7일까지 대사관은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KUBA)와 협력하여 200여명의 한국 기업 임원 및 대표들이 포함된 대한민국 기업 대표단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성사시켰다. 방문 기간 동안 타슈켄트와 시르다리아 지역에서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총체적으로 2022년 부처 및 기관 간 상호 방문 횟수는 250회가 넘었다. 이러한 방문과 진행중인 협상은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상호 유익한



방향을 모색하며 관점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대화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속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물론 2023년에도 여러 부처 및 기관들이 대표단의 교류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교 이후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변화와 국제 문제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결국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폭넓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 측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단기적, 장기적으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주한독일대사 미하엘 라이펜슈틀 대사

세계화된 세상의 지역 협력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개시했다.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지만 실상 유럽의 이 지역은 2014년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민주주의 체제가 일상 생활에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토대이며 지역 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적 관여가 시민 참여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민주주의가 구체적이고 유형적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시장 및 공동체 조직의 일이라고 굳게 믿는다.

‘도시 외교’의 확대는 현 독일 정부의 연립 정부 합의서에 명시된 목표 중 하나이며 국제 및 다자간 노력과

קהל 같이한다: 마지막 지속가능발전목표 17은 다중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장려한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과 복지,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또는 기후 행동과 같은 많은 것들이 불가분하게 연결된 의제 2030의 목표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독일은 그 자체로 다단계 사고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연방 국가로서 헌법상 주 및 지역사회에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며, 국가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과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연방의 일부 주들은 심지어 해외에 공식적인 대표부도 두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는 유럽 연합의 조직 구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7,200개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 외교는 독일의 ‘협업체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인데, 이 용어는 이미 1969년 예지력 있는 젊은 국무 차관에 의해 만들어졌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독일의 도시 간 우호협정은 양국 사회가 화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2023년은 수교 140주년을 맞은 독일과 한국의 우정에 특별한 해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많은 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한 협력으로 창출되는 영감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 도시와 지역 간의 파트너십을 장려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두 나라 모두 기후 변화에 맞서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독일 도시들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프라이부르크, 뮌스터와 같은 도시에서는 자전거 인프라와 문화의 구축이 크게 진전되어 한국에 벤치마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프라이부르크는 2016년 수원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맺고 지속가능성,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수단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시민사회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협력은 물론 프라이부르크-수원친선협회, 한독협회 등 협의체의 헌신이 결정적이다. 서울의 노인들을 위한 무료 대중 교통에 대한 현재의 논쟁도 공통적인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포용적인 환경, 사회 복지, 그리고 노령 인구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도전임을 보여준다.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이주와 통합의 문제인데, 이는 모든 수준의 거버넌스에서 협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행정의 디지털화도 되풀이 되는 주제인데, 이는 민주주의 강화, 문화 진흥, 청년 노동 이외에 독일 지자체들이 기술에 대한 한국의 개방성을 통해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많은 파트너들이 옛 동서독 국경 지역의 경험과 대처 전략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정치와 갈등이 만들어내는 부담이 무엇보다도 지방 차원에서 느껴진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강원도와 바이에른주 오버프랑켄 지역은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관련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옛 ‘죽음의 지대’를 따라 만들어진 독일의 그린벨트를 통해 얻어진 전문지식이 DMZ에 평화공원을 계획할 때 특별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지방이 글로벌리즘으로부터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독일과 한국 사이에 지자체 차원의 유대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불안정한 세계에서 많은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의 도시와 사회는 모든 수준에서, 그리고 모든 도시에서 국제 협력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편집후기

GLOCALISM QUARTERLY 매거진은 한국 지방정부의 외교활동을 전하며, 4개 주요 섹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지방외교 활동>은 한국 광역시도의 지방외교 활동을 다룹니다. 경제, 통상,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주제별로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 지방외교 활동>은 해외 지방정부의 지방외교 활동을 소개합니다. 특히 6개 협의회 해외사무소에서 현지 지방정부가 전개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한국 지방정부가 협력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외교 협력파트너>는 매거진 매 호별 주제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소개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심습니다. 예컨대, 창간호인 이번 금번호의 경우 주제인 “국제행사와 지방외교”에 대해 국내외 국제행사 전문기관 대표의 기고문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외교 뉴스>는 주한외국공관, 국내외 국제교류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우즈벡 수교 30주년을 맞았던 2022년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요약정리하고 향후 교류전망을 실었습니다. 또한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주한독일대사관을 소식을 전합니다.

2023년 봄호를 창간호로 하여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국 지방정부의 외교활동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본 매거진이 ‘지방외교’의 의미를 전달하고, 지자체 국제교류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GLOCALISM QUARTERLY 매거진

2023 봄, 제1호(창간호)

발행일	2023년 3월 29일
발행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편 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협력부
영문에디터	Bazil (Joseph) Manietta
주 소	0318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문 의	02-2170-6042